

토크쇼 나선 박인비 “워라벨, 골프에도 꼭 필요”

KB금융, 워라벨 확산 위해 콘서트

KB금융그룹은 지난 9일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그룹 임직원 200명을 초청해 박인비 선수와 함께하는 ‘KB워라벨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워라벨(Work & Life Balance)’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퍼팅 대결, 애장품 증정 및 단체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박 선수는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 3년여 만에 세계 1위를 다시 탈환한 소감을 비롯해 골프와 개인의 삶에 대한 생각들을 진솔하게 털어 놓았다. 최근 퍼터를 바꿔 우승한 과정을 언급하며, 정상에 자리에 있지만 항상 변화를 추구하며 최고의 기량을 지속적으로 펼치려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소개했다.

또 밴크로프트 파운더스컵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나의 30대에도 골프 인생과 개인의 삶



지난 9일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대강당에서 진행된 ‘KB워라벨 토크콘서트’에서 박인비 선수와 KB금융 임직원들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

에 있어 균형을 잘 유지하고 싶다”고 밝힌 것처럼 ‘워라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5년에 반려견 ‘세미’ 때문에 대회를 포기했던 사연을 이야기 하면서 참가자들과 함께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 보

기도 했다. KB금융 임직원들은 박 선수와 격의없는 소통을 나눈 것은 물론 족석에서 퍼팅 대결을 펼치며 직접 원포인트 레슨도 받았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우리은행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 행사

우리은행은 제주 애월읍 소재 광금초등학교 학생 42명을 초청해 ‘도서벽지 어린이 서울초청 행사’를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농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1984년부터 35회째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환영식을 시작으로 ▲우리은행 방송국 및 은행사박물관 견학 ▲청와대 방문 및 직업 체험 등 3박4일 기간 동안 주요 시설 견학과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지난 9일 행사에 참여한 제주 애월읍 소재 광금초등학교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2018 넷마블게임소통교육 부모공감클래스

게임 및 실리 전문가와 함께 게임의 의미와 자녀의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Ok! Talkey

넷마블문화재단 게임소통교육 참가자 모집

넷마블문화재단은 2018년 넷마블게임소통교육 부모공감클래스 ‘오키토키(Ok! Talkey)’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부모공감클래스 ‘오키토키’는 넷마블이 지난 2016년부터 초등학교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해온 가족 소통 및 관계 증진 프로그램 ‘게임소통교육’의 일환이다. 학부모 및 교사가 게임문화의 가치와 진로, 건강한 소통 방법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한 오픈형 강이다.

오는 5월 24일 ‘게임과 사회’, 6월 21일 ‘게임과 직업’, 7월 19일 ‘게임과 문화’의 주제로 총 3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는 게임 및 심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학부모가 함께 이끌어 나가는 토크 형식으로 서울시 중구 ‘스페이스 아트1’에서 열린다. /김나인 기자 silkni@

한국전력 어린이 전기사랑 그리기 대회 열어

한국전력은 어린이와의 감성적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어린이 전기사랑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초등학교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전기, 한국전력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에 대해 한전의 영입 서비스 캐릭터인 해피, 케피, 우피를 활용해 그림을 그리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응모는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본인이 그린 그림을 갖고 한전 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수상자는 6월말에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서 공지 또는 개별 통보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운세

5월 11일 (음 3월 26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가정에 기쁜 일이 생긴다. 60년생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손재수가 있게 된다. 72년생 작은 이익에 연연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84년생 자묘 형살이 있어 부적절한 이상으로 인해 망신을 당하게 된다.	말 54년생 손익계산을 따지지 말고 인간관계를 구축하라. 66년생 협조자의 배신으로 인한 근심이 있다. 78년생 일에 전력을 다 하면 성공이 보인다. 90년생 적당한 긴장감은 심신에 활력이 될 수 있다.
소 49년생 밑의 사람 잘못으로 책임질 일이 생긴다. 61년생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온다. 73년생 크게 생각하고 작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85년생 새로운 변화나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야 한다.	양 55년생 동업자와 하찮은 일로 마음 고생이 크다. 67년생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를 먼저 배려하라. 79년생 나보다 못한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 91년생 어려운일도 자주 접하면 적응이 된다.
호랑이 50년생 과거의 좋은 인연으로 새로운 일이 생긴다. 62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남의 일에는 일절 간섭하지 마라. 74년생 직접 연루된 일에만 관심을 갖도록 하라. 86년생 구태의연한 방에서 탈피 하도록 하라.	원숭이 56년생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운세다. 68년생 스트레스 해소는 전방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80년생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92년생 감각이 예민해지는 시기나 내치 마라.
토끼 51년생 호사다마의 운이라 않은 횡재수가 화근이 된다. 63년생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 함께 도모하라. 75년생 가까운 이성친구와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87년생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만 부가치는 적다.	닭 57년생 내 단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으니 불편하다. 69년생 병은 자랑을 해야 고칠 수 있다. 81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말로 상처를 받는다. 93년생 혼자 독주 한 결과 주변에서 시기하는 말을 듣게 된다.
뱀 52년생 치고 빠지는 방법으로 상황을 반전 시켜라. 64년생 어려울때는 관망하는 자세로 임하라. 76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칭찬 받을 일이 생긴다. 88년생 친척과 돈거래를 하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긴다.	개 58년생 합의 운이라 멀리 지내던 사람과 의기 투합할 일이 있다. 70년생 언쟁으로 속상한 일이 있다. 82년생 지출은 줄이고 낭비를 막아라. 94년생 새로운 만남과 이별의 아쉬움이 있는 운세다.
뱀 53년생 비가 내리고 나면 땅이 더욱 굳어진다. 65년생 주변사람과 두터운 외벽을 사이에 두고 있으면 심신이 피로하다. 77년생 고만하던 일이 해결된다. 89년생 감정대립은 상호 간에 양극만 낀다.	돼지 59년생 건강 체크를 하고 주위의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71년생 재운이 들어와 투자할 일이 있다. 83년생 동아리회에 리더로 활동하면 사업에 도움이 된다. 95년생 재물에 애착을 버리면 마음이 가볍다.

김상회의 四季

부처님 오신 날

음력으로는 4월 초파일이지만 양력으로는 5월 22일이 된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의 정기법회가 있는 매월 첫째 일요일 5월 6일에 올해의 봉축법요식을 함께 거행했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한 두 군데 이상의 절과 인연을 맺고 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에 아침부터 이 절 저 절 인연 맺은 절집에 참배를 위해 뛰어다니는 신도들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다. 어차피 부처님 오신 날이 어디 있단가? 따라서 신도 분들의 분주한 하루에 배려를 하여드리고 싶은 것이다. 어느 절집처럼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에서 2018년 초부터 이미 ‘연등 만들기’에 전력을 쏟았다. 기실 대부분의 크고 작은 사찰들에서는 음력 3월 초하루 기도를 마치고 나면 바로 연등접수를 시작하면서 바로 여러 종류의 연등을 제작하곤 한다. 준비된 연등 틀에 초록색 일부부터 밀등을 두 줄쯤 붙인 후 분홍색 또는 주황색 등 꽃잎을 붙여 올라가다보면 나름 소담스런 연꽃등이 완성된다.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연등이 소개되고 있는 지라 장관도 그런 장관이 없다. 각각각색의 모양과 색상으로 장식된 연등은 물론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고 아담한 등들까지 아름답기 그지없다.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등을 만들려고 올력보시를 하는 신도들 덕택에 벌써 꽤 많은 연등이 달려져 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환희 심으로 벅차오른다. 필자는 근 십년 전부터는 연등을 달고자 하는 신도들이 되도록이면 직접 자신의 등을 만들어 달도록 했다. 한 잎 한 잎 마음속으로 간절한 발원을 담아 연등을 만들어 단다면 그 정성이 어디로 가겠는가? 연등(燃燈)이란 말 그대로 ‘불을 밝힌다.’ 무명(無明)을 밝힌다는 뜻이다. 우리 마음과 행동 속의 어리석음과 탐욕 성냄을 밝혀서 본래의 밝은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 함이다. 진흙물 속에서도 맑고 청정함을 잃지 않는 연꽃의 향기와 거기에 더하여 아담 가운데서도 빛나는 연등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피안의 행복으로 이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등을 밝힐 때 우리 마음 속의 무명을 밝히는 신묘한 힘이 있다. 복덕 또한 쌓을 수 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대등을 달기도 하고 사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형편에 맞추어 연등을 달지만 그 정성과 복덕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빈녀일등(貧女一燈)의 유래가 있듯이 말이다. 부처님 오신 좋은 날에 마음속에 항상 꺼지지 않는 진리와 복덕의 연등을 밝혀보시길 바라본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8				
		9						2
	1		7			5	6	
2				1				9
8	4	5	9	7				3
9				5				8
3				8		7	5	6
	2		3		6			1

		1	2	8		4	7	9
3					9			8
4								6
	8		9		6		7	
5								2
9			2	3	7			5
		2	7	5		1	3	4

스도쿠 정답

6	1	8	9	7	5	2	3	4
2	7	5	4	6	3	8	9	1
9	5	2	1	8	7	4	6	3
4	8	7	3	9	1	5	2	6
1	9	3	2	6	5	7	8	4
5	6	7	8	1	9	3	4	2
8	9	5	6	4	2	1	7	3
3	2	1	5	9	7	6	8	4
7	4	6	8	2	1	5	9	3
2	3	9	6	8	7	5	4	1
6	7	4	1	9	5	2	3	8
5	1	8	2	3	9	7	6	4
2	9	7	8	1	6	9	5	3
1	4	5	9	7	6	8	3	2
9	8	6	5	2	1	4	7	3
8	9	1	2	6	4	7	5	3
3	6	2	7	5	8	1	9	4
7	5	3	4	1	9	8	6	2

문제 제공: 보너스